

# 서울발 KTX 매진됐다는데... '황금연휴' =코로나 위기?

### 오는 30일부터 '황금연휴' 노린 29일 저녁 주요지역 KTX노선 매진

### 부활절·총선 잠복기 고려 전국 재유행 가능성 ↑...“언제든 위협 돌아와”

이달말 황금연휴 기간을 앞두고 서울 출발 일부 KTX 예약이 매진 되는 등 귀성객과 여행객이 붐빌 조짐을 보여 지자체가 비상이다. 이틀로부터 시작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국회의원 선거 이후 잠복기를 고려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뇌관으로 떠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9일 저녁 △서울-부산 △서울-동대구 △서울-울산(통도사) △서울-창원중앙 △용산-여수EXPO △용산-전주 △용산-목포 등 많은 KTX노선이 매진됐거나 자유석, 입석+좌석 등으로 전환됐다.

특히 용산-여수EXPO, 서울-동대구, 서울-부산 노선은 29일 오후 6시 이후 KTX 열차의 특별석과 일반석이 대부분 매진됐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을 이용해 고향에 다

녀오려는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30일 석가탄신일로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다음달 1일, 4일 양일간 휴가를 낼 경우 최장 6일의 장기간 휴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KTX뿐만 아니라 봄철 여행객 증가에 따른 항공 노선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16일 김포-여수, 여수-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했으며 29일부터는 매일 운항한다.

에어부산도 지난달 제주 노선 증편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울산-김포, 울산-제주 노선을 매일 왕복 2회씩 운항한다. 부산-제주 노선은 이미 하루 3회에서 5회로 운항을 증편했다.

제주도 내방 관광객 수는 지난 1주일 사이 1만명 이상 늘었다. 따뜻한 봄철을 맞아 관광객 수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0

일~16일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0만4953명으로 전주(3일~9일) 9만2666명 대비 1만2287명 늘었다.

지난달 말 자가격리자의 격리 지침 준수를 어기고 무단이탈 후 제주여행에 나선 '강남 제주 모녀' 사건이 있은 후 관광객 수가 주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시작된 눈에 띄지 않는 확진자들이 귀성 및 여행에 나설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파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최소한 1주일, 적어도 2주일 정도는 방역적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월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며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 출입도 늘었다”며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활절과 총선 기간 이후 바이러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증상은 황금연휴기간과 딱 맞물린다. 이 기간 전국적 대유행으로 유행곡선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지자체가 비상이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느슨해졌는지

평가 중이다. 잠복기를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인 4월20일~5월15일 사이 확진자 수를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지역사회에 증상이 없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느슨해지면 언제든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모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적한 것처럼 느슨해지면 언제든 위협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다.

신봉우 기자



마스크는 썼지만...빈 틈 없는 시장 골목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부룩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유지하지만 일부제한은 완화한다고 밝혔다.

## '엄마 개학' 현실로?...초등 저학년도, 오늘 온라인 개학 합류

### “등교 수업 전까지는 과제 제출 최소화해야” 의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도 20일 마지막 원격수업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마 개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 습관도 무너진 경우가 많아 결국 학부모

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오모씨(39)는 20일 아침이 밝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초등학교 1·3·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서 낮에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인 그는 “국가적 비상사태니까 다들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제때 수업을 듣게 하는 일부터 숙제까지 다 챙겨야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

에서는 엄마 개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선생님과 엄마만 맘 졸이는 걸 보니 엄마 개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토끼넷\*\*\*). “출석해라! 이거 써라! 해도 집중력 완전 제로...애들 개학인지, 엄마 개학인지”(토\*\*). 등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교육부는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교사와 학생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만 하는 '실시간 쌍방향형'이나 준비된 교육 콘텐츠를 인터넷에 접속해 수강하게 하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교육 콘텐츠를 TV로 시청하고,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교사가 제작해 나눠 준 '학습꾸러미'(가정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업 결손을 막기로 했다.

데블릿PC나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이 없어 많은 학부모가 안도했지만, 학습 지도는 가정의 몫으로 남겨졌고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학습방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출석 여부나 과제 등을 계속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엄마 개학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원격 수업 기간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를 최소화하고 출석 확인 등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등학교 1·5학년과 6세 자녀를 둔 학부모 서효진씨(42)는 “혼자 공부할 아이들이 걱정돼 과제를 주고 확인하는 선생님들의 선의는 고맙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대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정세균 총리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제한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  
 “등교개학, 상황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라며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

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아라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